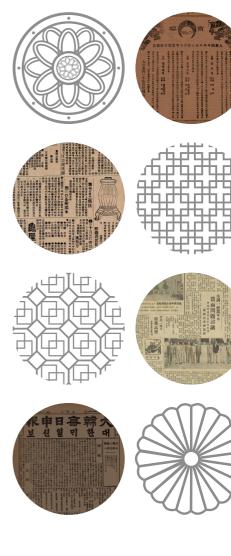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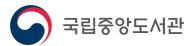


CHRUP.

과 거 와 미 래 의 소 통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근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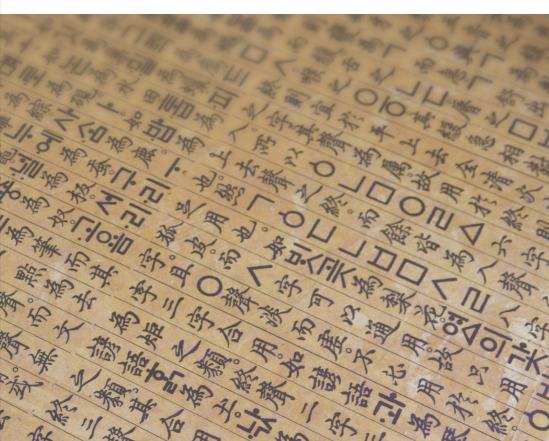
고신문 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보, 보물,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문헌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 제18조) 고신문은 구한말 근대시대 태동부터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변란의 우리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 1차 사료로 보존 가치와 활용성이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국가지식 문화유산 이용서비스 고도화 실현





국가지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고신문은 pH 4.0이하의 산성지로서 장기간 보존에 취약하며 50년에서 100년이지난 자료는 열화의 단계에서 훼손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디지털화를 통한영구보존이필요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 사업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자체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고신문 디지털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신문은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과 물가정보 등의 사회전반을 엿볼 수 있으며, 연재소설, 사진, 광고 등을 통해 문화적 측면까지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창작 활동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방송, 영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에도 기여하는 등 산업적 활용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강화

고신문 이용자(학생, 연구자, 영화감독, 작가 등)

고신문 DB구축 전(3시간)

- 1. 도서관 방문
- 2. 자료신청
- 3. 신청접수
- 4. 보존서고 내 자료 찾기
- 5. 자료인계 및 이용



고신문 DB구축 후(3분)

- 1.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접속
- 자료검색 및 자료 이용
 (자료 출력 가능)



영화 한류

콘텐츠 산업 활용 출판

교육/ 연구

드라마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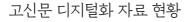
고신문 자료 디지털화 현황

영구 보존 / 전승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500만건 이상의 고신문 기사 디지털화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1898년부터 1960년대까지 근현대 신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고신문 자료를 수집하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 12, 31 기준)

신문 종수	기사건수	주제어수					키워드수
종수	종수 기사인구	합계	인물	단체	사건	장소	기취드구
98	5,481,906	2,396,245	139,024	66,944	471,685	1,718,592	18,113,608

고신문 디지털화 연혁







- 2013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고신문 디지털화
-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 사업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추진)
- 2016
-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 개설
- 한국언론진흥재단 MOU 체결 (고신문 정보자원 공동활용 상호협력)
- 2017
- 고신문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 (계속)
- 2018
- 국사편찬위원회 고신문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 2019
-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기반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 고도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역동의 시대로 통하는 열린 '門'

66

학술연구, 창작 소재, 각종 콘텐츠 사업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자원의 다양한 활용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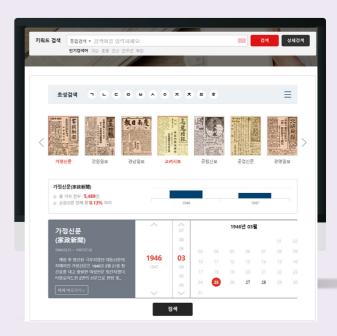
99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고신문 디지털화 자료의 영구보존과 함께 이용자가 쉽게 신문별, 일자별, 기사 검색을 통하여 신문 원문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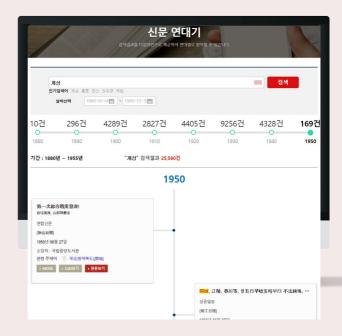
▲ 검색어를 활용한 키워드 검색 기능과 신문 종별 또는 발행일별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문 트렌드



▲ 최대 3개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시대별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연대기



▲ 검색결과를 타임라인으로 제공하여 연대별 기사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제관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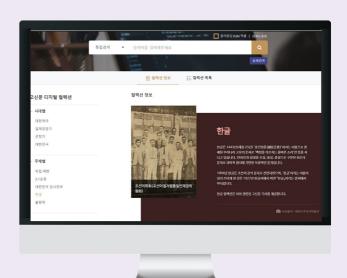
▲ 검색어와 관련된 인명, 지명, 사건명 등의 주제어를 관계도 형태로 제공하며 관련 주제어를 통한 확장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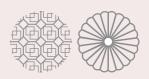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중인 고신문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 〈국가서지 LOD〉와 연계하여 시대/주제별로 고신문 디지털컬렉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다.



가정신문(家政新聞)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기사수	비고
	1946.03.25~1947.07.26	서울	일간	국문 및 국한문	5,489	대한일보로 제호변경
강원일보(江原日報)	1947.10.08~1949.06.30	강원	일간	국한문	6,043	
경남일보(慶南日報)	1909.11.05~1950.02.20	진주	일간	국한문	8,105	
경성일보(京城日報)	1924.01.01~1924.04.30	서울	일간	일문	28,181	
고려시보(高麗時報)	1933.05.01~1941.04.16	서울	순간	국한문	6,660	
공립신보(共立新報)	1905.11.22~1909.01.27	· 는 샌프란시스코	주간	국문	7,189	신한민보로 제호변경
공업신문(工業新聞)	1945.10.24~1950.03.31	경성	일간	국한문	29,425	
광명일보(光明日報)	1947.05.01~1947.08.14	서울	일간	국한문	1,378	
광주민보(光州民報)	1945.11.20~1946.06.28	광주	일간	국한문	4,252	동광신문으로 제호변경
국도신문(國都新聞)	1950.01.01~1950.06.27	서울	일간	국한문	10,335	3022=1,1220
국민신문(國民新聞)	1948.09.20~1948.10.29	서울	일간	국한문	2,362	
국민신보(國民新報)	1939.04.03~1942.08.30	경성 경성	주간	일문	9,104	무가지
국제신문(國際新聞)	1948.07.19~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10,422	17171
국제일보(國際日報)	1947.07.04~1947.08.14	서울	일간	국한문	1,026	
マゲンマ (群山新聞)	1947.11.15~1949.06.29	전북	일간	국한문	9,832	
남선경제신문(南鮮經濟新聞)	1950.01.01~1950.06.25	대구	일간	국한문	7,419	
남선신문(南鮮新聞)	1948.02.20~1948.05.26	마산	일간	국한문	1,432	남조선민보 제호변경
남조선민보(南朝鮮民報)	1948.05.30~1950.07.31	마산	일간	국한문	15,037	마산일보로 제호변경
노력인민	1947.06.19~1947.06.29	서울	일간	국한문	337	미단글포포 제호단당
노국 한 한 농민주보(農民週報)	1945.12.29~1947.12.13	서울	구간 주간	국문	2,030	
	1948.02.05 ~ 1948.09.29	서울	일간	국한문	2,887	
대공일보(大公日報) 대구시보(大邱時報)	1945.10.09~1949.03.27			국한문		
		대구	일간		51,165	
대동신문(大東新聞)	1945.11.25~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15,338	. 커이미이그 제주버려
대중신보(大衆新報)	1947.03.21~1947.06.18	서울	일간	국한문	2,064	노력인민으로 제호변경
대중일보(大衆日報)	1946.06.02~1950.06.20	인천	일간	국문	11,704	미니그 제국내가
대한독립신문(大韓獨立新聞) 대한매일신보	1945.11.03~1947.02.14	서울	일간	국한문 국문, 국한문	4,759	민보로 제호변경
(大韓毎日申報)	1904.08.04~1910.08.28	서울	일간	녹군, 녹인군 및 영문	169,888	
대한일보(大韓日報)	1947.07.27~1955.06.20	서울	일간	국문 및 국한문	14,967	
독립신문(獨立新聞)	1946.12.27~1948.12.31	서울	주간 및 일간	국한문	30,613	
독립신문(獨立新聞)[서재필]	1896.04.07~1899.12.04	서울	격일간	국문 및 영문	19,636	
독립신보(獨立新報)	1946.05.26~1948.12.30	서울	일간	국한문	31,514	
동광신문(東光新聞)	1946.07.03~1950.06.21	광주	일간	국한문	24,801	
동방신문(東方新聞)	1950.01.08~1950.06.09	강릉	일간 및 주간	국한문	1,152	
동방신문(東邦新聞)	1948.09.25~1950.06.15	대전	일간	국한문	5,421	
마산일보(馬山日報)	1950.08.07~1966.12.31	마산	일간	국한문	213,518	
만선일보(滿鮮日報)	1939.12.01~1940.09.30	장춘(중국)	일간	국한문	17,055	
만세보(萬歲報)	1906.06.17~1907.07.22	서울	일간	국한문	11,252	
매일신문(每日新聞)	1898.04.09~1899.04.03	서울	일간	국문	6,842	
매일신보(每日新報)	1910.08.30~1945.08.16	서울	일간	국한문	1,335,702	
무역신문(貿易新聞)	1947.09.08~1948.09.22	서울	일간	국한문	616	상업일보로 제호 변경 (1947년 제호는 新貿易, 1948년 제호는 貿易新聞, 1948년 신문명 바로 밑에 新貿易改鹽라기록되어있음)
문화일보(文化日報)	1947.03.11~1947.09.24	서울	일간	국한문	1,684	
민국일보(民國日報)	1948.11.26~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2,081	
민보(民報)	1947.02.15~1947.06.15	서울	일간	국한문	4,294	

신문명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어어	기사수	비고
						0175
リススト(民主日報)	1947.01.01~1948.12.11	서울	일간	국한문	4,234	
민주중보(民主衆報) 	1945.09.20~1949.12.30	부산	일간	국한문	41,010	
민중일보(民衆日報)	1945.09.18~1948.05.30	경성	일간	국한문	19,942	
早は11日(金小笠間)	1946.10.23~1947.12.24	대구	일간	국한문	10,317	
早산신문(釜山新聞)	1946.05.03~1949.06.02	부산	일간	국한문	32,624	
早산일보(釜山日報)	1914.12.01~1944.03.31	부산	일간	일문	415,925	
부인신문	1950.01.01~1950.06.27 1947.05.03~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7,860	
부인신보(婦人新報)		서울	일간	국한문	17,311	
산업신문(産業新聞)	1950.01.01~1950.06.24	부산	일간	국한문	10,534	
상공일보(商工日報)	1950.04.01~1950.06.27	서울	일간	국한문	4,407	
상업일보(商業日報) 	1947.10.05~1948.12.29 1947.03.15~1947.06.26	서울	일간 일간	국한문 국한문	256 1,875	조선중앙일보
	10460610 10401220					(유해붕)으로 제호변경
수산경제신문(水産經濟新聞)	1946.06.10~1949.12.30	서울	일간	국한문	44,054	
시대일보(時代日報)	1924.03.31~1926.07.31	서울	일간	국한문	79,930	
신민일보(新民日報)	1948.02.10~1948.05.23	서울	일간	국한문	3,846	
신조선보(新朝鮮報)	1945.10.05~1946.01.20	서울	일간	국한문	3,299	
신한민보(新韓民報)	1909.02.10~1950.12.28	샌프란시스코	주간	국문	60,117	
어린이신문	1945.12.01~1947.12.13	서울	주간	국문	2,220	
여성신문	1947.04.20~1947.07.02	서울	일간	국한문	1,621	
연합신문(聯合新聞)	1949.01.22~1950.06.27	서울	일간	국한문	36,995	
영남일보(嶺南日報)	1945.10.13~1949.12.30	대구	일간	국한문	51,525	
예술통신(藝術通信)	1946.11.05~1947.03.02	서울	일간	국한문	941	문화일보로 제호변경
우리신문	1947.05.17~1948.05.25	서울	일간	국한문	3,844	
자유민보(自由民報)	1949.07.01~1950.06.25	부산	일간	국한문	20,577	70 1117 215 117
자유신문(自由新聞)	1945.10.05~1952.03.10	서울	일간	국한문	70,387	자유신보로 제호변경
자유신보(自由新報)	1953.09.06~1953.12.31	서울	일간	국한문	5,136	
전국노동자신문 (全國勞動者新聞)	1945.11.01~1947.08.08	서울	격주간	국한문	917	
제국신문(帝國新聞)	1898.08.10~1906.06.07	서울	일간	국문	31,119	
제삼특보(第三特報)	1946.10.28~1946.12.19	서울	일간	국한문	1,916	신민일보로 제호변경
제일신문(第一新聞)	1947.11.04~1947.12.31	서울	일간	국한문	2,347	
제주신보(濟州新報)	1947.01.01~1948.04.20	제주	일간	국한문	3,927	
조선경제신보(朝鮮經濟新報)	1945.09.29~1947.09.22	서울	일간	국한문	2,233	
조선수산시보 (朝鮮水産時報)	1946.01.01~1946.05.15	서울	일간	국한문	149	수산경제신문으로 제호변경
조선시보(朝鮮時報)	1914.11.02~1940.08.31	부산	일간	일문	460,742	
조선신문(朝鮮新聞)	1924.01.01~1935.12.31	서울	일간	일문	1,161,663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여운형]	1933.03.07~1936.09.04	서울	일간	국한문	147,790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유해붕]	1947.07.01~1949.09.15	서울	일간	국한문	34,192	
중앙신문(中央新聞)	1945.11.01~1948.04.07	서울	일간	국한문	28,803	
중앙일보(中央日報)	1931.11.27~1933.04.30	서울	일간	국한문	37,046	
중외경제신보(中外經濟新報)	1946.12.11~1947.04.15	서울	일간	국한문	4,614	
중외신보(中外新報)	1946.04.19~1947.06.27	서울	일간	국한문	4,916	
중외일보(中外日報)	1926.11.15~1931.06.19	서울	일간	국한문	124,720	
충청매일(忠淸每日)	1949.07.01~1949.12.29	대전	일간	국한문	6,595	
평화일보(平和日報)	1948.02.08~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15,142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10.31~1884.10.09	서울	일간	국한문	1,652	
한성일보(漢城日報)	1946.02.26~1950.06.15	서울	일간	국한문	65,470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01.25~1888.03.12	서울	주간	국한문	1,564	
현대일보(現代日報)	1946.03.26~1948.10.24	서울	일간	국한문	32,872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1898.01.01~1898.04.02	서울	주간	국문	403	
호남신문	1948.07.01~1949.12.15	광주	일간	국한문	20,084	
황민일보(皇民日報)	1942.06.25~1942.12.31	경성	일간	일문	6,119	

"동마다 넓은 집으로 신문종람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남녀노소가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둘러앉아 혹 담배를 피우고 혹은 아이를 안고 혹은 일거리를 하되, 유식한 한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낭독한 뒤에 뜻을 설명하면 내외국의 사정과 고금의 형편을 모를 것 없이 다 알게 되었다." (김유탁, 『신문 광포의견서』, 『서우』, 1907.8)



가정신문(家政新聞) 대한일보(大韓日報)

1946년 3월 21일 극우지였던 〈대동신문〉의 자매지로 여성전문 일간지였다. 여성전문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 위주로 편집이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국한문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이승만과 김구를 옹호하는 우편향 신문이었다. 1946년 3월 21일 창간호를 내고 출발한 여성전문 일간지였던 가정신문을 259호로 종간하고, 이종형이 대한일보로 개제하여 1947년 7월 27일 260호를 발간한 극우지로서 국수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신문이었다.

강원일보(江原日報)

강원일보는 해방 직후 1945년 9월 5일 창간된 동인지 계열의 신문으로 10월 24일날 '팽오통신'이란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하다가 한달만인 11월 27일 신문 이름을 '강원일보'로 바꾸면서 오늘날 강원일보로 이어지게 된다.





경남일보(慶南日報)

1909년 10월 15일에 경남 진주에서 발행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방 신문이다.

경남일보는 식민지 시기 발행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 외에는 유일한 일간신문이었지만, 식민지가 되면서 결국 5년 만에 사라졌으나 해방이 된 후 1946년 4월 재창간한다.



경성일보(京城日報)

경성일보는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에 의해 1906년 8월 10일 인가를 받아 1906년 9월 1일 한성신보와 대동신보를 통합 하여 창간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다.

1907년 7월 신문지법을 통한 강력한 언론통제로 경성일보는 1920년대 민간지가 발행되기 전까지 조선의 언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전문적인 언론인이 사장을 맡았으나 1920년대 이후 거물급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보(高麗時報)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향토문화의 계발, 지방의 발전 등을 기치로 내걸고 1933년 4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월 2회 발행된 종합지이다.

"고려시보고에는 고려의 역사를 강조하는 등 개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는 기사논설이 다수 실렸고 한편 으로는 개성의 교육 문제 등 지역의 현안도 다루었다. 월 2회 꽤 안정적으로 발간이 지속되었으나 1940년을 전후한 일제의 언론 통폐합 정책의 결과로 1941년 4월 16일 제15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공립신보(共立新報) 신한민보(新韓民報)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문이다. 1909년 2월 국민회가 성립되면서 공립신보를 이어서 발행된 신문이 신한민보이다. 신한민보는 미주 한인 사회 발행 신문으로서 미주 지역 한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민족운동 언론으로서 항일 민족운동에 관한 정보도 많이 담고 있어 민족운동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업신문(工業新聞)

공업신문은 1945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8에서 조선공업기술협회의 기관지로서 청간하였으며, 공업정책과 과학인,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의 공업기술신문 으로 공업, 광업, 건설협회 등의 소식을 담고 있다.





광명일보(光明日報)

중외경제신보를 1947년 5월 1일 광명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발간된 신문으로 경제신문을 종합 일간지로 바꾸어서 발행된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한 신문이다.

문화기사는 많지 않고 주로 정치기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좌익언론 가운데 하나였다.

광주민보(光州民報) 동광신문(東光新聞)

창간당시 제호는 〈광주민보(光州民報)〉로 158호까지 발행되고 이후 159호부터는 〈동광신문〉으로 개칭한 동인제로 창간된 신문이었다. 광주민보는 전반적으로 지역 기사를 중심으로 중앙의 뉴스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좌익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썼고, 이후호남지방 한민당의 기관지로 넘어가게 된다.





국도신문(國都新聞)

국재신문이 "폭동사건에 경북자사 가담"이라는 기사로 필화를 입어 1949년 3월 6일 폐간되자 장석윤이 판권을 인수하여 1949년 3월 17일에 국도신문으로 흡수하여 발간한 우익지다. 국도신문의 주요간부들은 거의 자유당과 관련된 인물 혹은 친일파 출신었고 우익지이자 여당지의 성격이 뚜렷했다.

국민신문(國民新聞)

1948년 9월 20일 서울에서 창간한 일간신문으로, 창간사에서 국민신문의 이상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신정부수립에 맞춰 '인민의 손으로 인민을 위하는 인민의 정권', '정의에 입각한 자유, 자유를 보장하는 평등, 평등하게 향유되는 번영의 사회', '인류문화의 향상'에 이상과 방향성을 두고 창간한 신문이다.





국민신보(國民新報)

1939년 4월 3일에 창간된 〈국민신보〉는 〈매일신보〉의 자매지로 주간지이자 무가지 개념으로 발행되었다.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과 사설, 문학작품이 주로 실력 있으며 사진과 삽화가 적절하게 편집되어있다. 전쟁기간에 발행된 신문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일제의 황국신민화 논리에 충실하여 쓴 글 등이 남아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신문이다.

국제신문(國際新聞)

국제신문은 정부수립 전후 중앙 5대지의 하나로 휴간중인 민보의 판권을 인수한 정무묵이 1948년 7월 16일자 351호로 지령을 계승하여 발행하였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였으며 공정을 신조로 공정보도를 원칙으로 다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중도우익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제일보(國際日報)

국제일보는 1947년 4월 19일 창간된 좌익 계열 신문이다. 미군정의 좌익계열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휴간이 잦았으며 미군정법령 위반혐의로 1947년 8월 11일 폐간된다. 정치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반탁운동에 대한 비판,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지 기사, 한국과 연관된 해외 소식 등으로 기사가 구성되었다. 특이할 점은 광고가 없었다.

군산신문(群山新聞)

창간사에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인 필법을 내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좌익이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일보직전이었기 때문에 우파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김구와 한독당 계열의 기사가 많이 실리기도 했다. 군산신문은 지역 기사를 다수 수록하였다.





남선경제신문 (南鮮經濟新聞)

1946년 3월 1일 대구에서 창간된 경제일간지로서, 우익계열의 신문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1950년 3월 22일자부터 〈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1950년 8월 1일 대구매일 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고, 1960년 7월 7일 〈매일신문〉으로 개칭했으며 1980년 언론통폐합 때 「영남일보」를 흡수하여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



남선신문(南鮮新聞) 마산일보(馬山日報) 남조선민보(南朝鮮民報)

남선신문은 해방 후 1946년 3월 1일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에서 창간된 첫 지역신문이다.

신문 발간의 목표는 불편부당 공정 언론의 육성, 자주독립 정신의 배양, 민족의 독특한 장기 발견과 육성, 대중 생활 개선과 농어촌 개량, 서양 문명의 수입과 흡수, 동아 문명의 연구와 통일 발표 등 6개항 이었다.

남선신문으로 시작해 1948년 5월 30일 남조선민보, 1950년 8월 초 마산일보, 1967년 1월 1일 한글 제호인 경남매일신문, 1969년 3월 15일 경남매일로 제호를 변경해 왔고, 1981년 1월 1일부터 경남신문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창원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종합일간지로 발행되고 있다



농민주보(農民週報)

미군이 수립한 주한미군정청의 공보과에서 설치한 선전지 가운데 하나로서, 미군정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순한글로 제작되었으며, 만화와 삽화 등을 활용하여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945년 12월 17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군정이 마감되는 1948년 8월까지 발행되었다.





대공일보(大公日報)

1945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창간된 일간신문이며 전반적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좌우를 망라한 민족의 대단결을 촉구 하는 입장을 보였다.

1945년 12월 자진 휴가하였다 1947년 중반 무렵에 복간하였고, 복간 후에는 신문의 우경화가 두드러졌다.

대구시보(大邱時報)

1945년 10월 3일 일제 말 대구 지역의 유일한 신문이었던 대구일일신문의 시설을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지부라 할 수 있는 건국준비치안유지회에서 인수하여 창간한 신문이다. 대구시보는 대구 지역신문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구 및 주변 지역의 농업 및 어업 상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미곡수집령과 배급 문제 등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동신문(大東新聞)

대동신문은 1945년 11월 25일에 창간된 대표적인 극우 신문으로, 동일한 문제와 사건내용에 대해 좌익신문과 전혀 상반된 견지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편집했으며, 내용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중신보(大衆新報) 노력인민

1947년 3월 21일 창간한 일간신문으로 1947년 6월 19일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력인민으로 제호를 바꿨다.

대중신보는 국내외뉴스, 기고, 논평, 광고, 사고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설란은 두지 않았다.





대중일보(大衆日報)

타블로이드판 2면 신문으로 광복 이후 인천 최초의 민간 정론지로서, 1950년 9월에 '인천시보'로 제목을 바꾼 것은 중앙지의 성격을 가졌던 '대중일보'에서 지방지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한문 혼용이지만 한자가 비교적 적게 수록되어 있으며, 좌익 기사들보다 우익의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독립신문(大韓獨立新聞) 민보(民報)

1945년 11월 3일,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우익 일간지이다. 창간호는 신문이라기보다 선전지에 가까운 모습이며, 타블로이드 2면의 등사석판 인쇄 신문으로 활자가 아닌 등사인쇄 신문이라는 점이 눈에 띤다. 1947년 2월 15일 부터 〈민보〉로 제호를 바꾸었으며, 민보로 개제한 이후 경영진 교체는 없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년 7월 18일에 창간한 일간신문으로 1905년 3월 10일 까지 국문판과 영문판이 하나의 신문으로 편집 발행되었다가 5개월간의 휴간을 거쳐 1905년 8월 11일 영문판과 국문판의 두 개 신문으로 발행되기 시작해 1907년 5월 22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907년 5월 23일 한글판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어 영문판, 국한문판, 한글판 3종류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독립신문(獨立新聞) 독립신문(獨立新聞)[서재필]

중경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던 '독립신문'을 1946년 12월 27일 다시 국내에서 속간한 신문이다

독립신문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이고, 둘째는 상태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신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신문이 중경임정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으로 국내에서 다시 속간된 신문으로서, 기사는 주로 김구와 한독당(韓獨黨)의 입장 표방을 내용으로 삼았다. 1948년 11월 9일 최윤엽에게 판권이 양도되면서 일반 사실보도 중심으로 지면이 개편되었다.





독립신보(獨立新報)

1946년 5월 1일에 창간된 〈독립신보〉는 좌익계열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1946년 신탁통치안을 지지하면서 좌익지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 예로 '제주도 파업, 폭동' 이라고 보도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1947년 3월 18일자 사설에서 '제주도의 궐기'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후에 1947년에 들어서는 좌우합작에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박헌영 계열의활동에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방신문(東方新聞)

동방신문은 1945년 9월 7일 창간된 격일간신문으로, 강릉에서 발행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방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정치관계의 뉴스가 주였던 당시의 신문에 비해서 경제문제에 중심을 두고 외신을 많이 싣기도 했다.





동방신문(東邦新聞)

식민지 시기 발행되던 중선일보가 해방 이후 중앙일보와 인민일보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발행되다가 다시 동방 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간행된 신문이다.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했는데 특별한 정치색을 띄기 보다는 사실 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시설 일체가 소실되면서 자연 폐간되었다.

만선일보(滿鮮日報)

1937년 10월부터 만주국 신경(滿洲國 新京, 현 중국 長春)에서 발간된 친일적 성격의 한국어 신문이다. 만선일보는 해방 당시까지 발행되었으며,한국어로 발행된 신문이어서 시, 소설 등 한국어 문예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서 한국 문학 연구의 자료로도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만세보(萬歲報)

일간지이며, 천도교의 기관지로서 창간되었지만 창간 목적을 민중의 계몽에 두었고 실제 지면에서도 논설, 시사 등 종합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만세보에는 새로운 형식과 문체의 신소설의 대표격인 '혈의 누' 상편과 '귀의 성'이 연재되는 등 한국 근대 문학사의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매일신문(每日新聞)

매일신문은 협성회회보의 후속지로 우리나라 신문사상 최초의 순한글 민간 일간지로 평가받는다.

뒤로 갈수록 매일신문은 특정한 집단, 단체의 회보 형식을 탈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근대 신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매일신보(每日新報)

대한매일신보가 통감부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1910년 9월 30일 매일신보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1910년대 매일신보는 일제의 선전 도구로 기능하였지만 한편으로 한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이 매일신보 이외에는 없던 시절, 한국어 문예 작품의 수록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간행되었다.

무역신문(貿易新聞) 상업일보(商業日報)

무역신문이 상업일보로 지령을 승계하면서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바뀌었다. 종합지가 되면서 김구 중심의 우익 진영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세계무역사정협회가 창간한 타블로이드판 2면의 경제지로, 처음에는 주간지로 발간되었으며, 당시 제호는 '신무역'이었고 1948년 2월 중순 무역 신문사로 발행사가 변경되면서 제호도 '무역신문'으로 변경하였다.





민국일보(民國日報)

1948년 11월 23일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하게 보이며 미군정의 좌익계 신문 탄압으로 1946년 9월 폐간했던 현대일보사 사옥을 인수해 신문을 발행했다. 친정부적-우익적 성향으로 타 신문에 비해 1면에서는 외신기사들이, 2면에서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을 전하는 경제 관련 소식과 '문화'란을 통해 문화예술 전반의 현상에 대해 논하거나 당대의 문화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일보(民主日報)

1946년 6월 1일 창간된 민주일보는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노선을 지지하면서 귀국 이후 임정의 노선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러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정한 정파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론지'라기 보다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종합일간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민주중보(民主衆報)

1945년 9월 1일 〈중보〉를 발행하였다. 8.15 광복 직후 혼란기에 새소식을 전하는 부산지역 유일의 신문이었으며, 1945년 9월 20일 〈민주중보〉로 제호가 바뀌었다가 후에 다시 〈민주신보〉로 바뀌게 된다.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 일어난 소식을 보도하는데 힘썼다.

민중일보(民衆日報)

1945년 9월 18일 역사학자 장도빈(張道斌)이 창설한 중도우익일간지로, '국사강좌', '지사(志士)'의 추억, '명사(名士)의 편영(片影)' 등 역사에 관한 연재물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1947년 4월 6일 윤보선(尹潽善)이 판권을 인수하여 속간 제1호부터 새로 발행되었다. 광복 직후 좌우대립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에서 민족주의 언론의 정도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1948년 12월 2일 정부 비난 선동혐의로 결국 폐간되었다.





부녀일보(婦女日報)

부녀일보는 1946년 3월 17일 대구에서 여성전문지로 창간 되었다. 부녀일보는 사설을 통해 남녀동등권을 주장하였고, 가정경제란(家政經濟欄)에서는 문화적 초보 지식과 여성계몽 운동 및 당시의 시장물가(市場物價)를 알려주었다.

부산신문(釜山新聞)

부산신문은 1946년 5월 3일 "언론의 중정을 표명하고 객관적 현실에 입각하여 내외의 정세와 지향을 공의로운 정신으로 비판의 정곡보도의 공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창간호부터 부산지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장편 소설인 정비석의 '원근춘(遠近春)'을 연재하기도 하였고 '남선북마(南船北馬)' 등의 만평을 실어 다양한 신문체제를 갖추었다.





부산일보(釜山日報)

부산일보는 1906년 2월 창간된 일본어 신문이다. 경제 및 산업 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무역, 해운, 기술, 통신 등 각종 경제 및 그 정책의 동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많은데 부산지역 일본어 신문의 특성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일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업신문 혹은 실업신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신문

부인신문은 1949년 2월 24일 대한애국부인회 등의 여성단체가 통합하여 대한부인회를 결성하고 부인신보를 개제하여 발행한 신문이다.

역사상 빛나는 활동을 한 여성을 소개했던 '세기의 여성'과 같이 기사의 논조는 계몽적이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새로운 여성상 확립에 대한 기고문을 많이 실었다.





부인신보(婦人新報)

부인신보는 1947년 5월 3일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기관지 격으로 창간한 신문이다. 창간사에서 "여성들의 절실한 염원을 풀어볼 기관으로 계몽과 단결의 도구요 전달과 향상의 사도인 '부인신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산업신문(産業新聞)

산업신문은 1947년 9월 1일 수산신문과 동아산업시보를 통합하여 창간한 신문이다. 창간 초기 경제지 성격의 신문으로서 산업 관련 기사나 경제 현안 등에 주력하였으나, 점차 정치·사회 기사가 주종을 이루면서 종합일간지로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상공일보(商工日報)

상공일보는 1950년 2월 공업신문을 인수,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한 신문이다. 순수상공전문지로 특수지의 성격을 살릴만한 기획기사가 없다는 세간의 평을 듣기도 하였다.

서울석간(서울夕刊)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유해봉

서울석간은 1947년 1월 30일 창간되어 81호까지 발행된 신문이며, 이후 1947년 7월 1일 82호부터 제호를 변경해 중앙일보라는 신문명 으로 발행한 일간신문이다. 82호 속간호를 내면서 〈서울석간 改題〉 라는 표식을 제호 바로 아래에 인쇄하여 한달간 발행하였다.

여운형이 1933년 창간했던 '조선중앙일보'와는 전혀 다른 신문이다. 서울석간이 반탁을 내세운 우익계 일간지였다면, 82호로 지령을 승계 하여 속간된 '조선중앙일보'는 속간호에서 김일성의 사진을 1면에 게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지에 속한다.





시대일보(時代日報)

시대일보는 최남선(崔南善)의 주도로 1922년 시사주간지 동명(東明)이 일간지로 전환되어 1924년 3월 31일에 창간된 한국어 민간 신문이다.

신조선보(新朝鮮報)

신조선보는 1945년 10월 5일 서울에서 창간된 일간 신문으로 안재홍 계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다. 주7회 발행하였고,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지만 한자 사용이 많지는 않았다.





어린이신문

어린이신문은 1945년 12월 1일 주간신문으로 창간되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방 이후 첫 번째 신문이다. 창간사를 통해 해방된 조국에서 그에 걸맞는 길 이른바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어린이신문은 다양한 종류의 글과 그림, 노래를 꾸준히 실었다.

여성신문

1946년 창간한 부녀신문의 지령을 이어받아 제호를 여성신문으로 바꾸고 1947년 15호부터 발행한 신문이다. 여성의 대변기관으로서 좋은 신문, 깨끗한 신문, 언제나 보고 싶은 신문, 마음의 벗이 되는 신문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여성교육과 의식계몽, 참정권과 경제권부터 건전한 성교육에 이르기까지 여권신장을 위한 폭넓은 기사를 다뤘다.



個人接觸 OL 回避

연합신문(聯合新聞)

1949년 1월 22일 창간한 대판 4면제의 석간신문이다. 창간 무렵 월 구독료는 400원이었는데, 독특하게 가두판매에 적극 나서 신문 1부를 3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용지로는 혁신적인 대판 4면제의 신문을 창간하였고, 한국전쟁으로 휴간되었다가 1951년 1월 1일 부산에서 속간호를 냈는데, 1953년 8월 31일 국회간첩단 사건으로 주필 정국은과 발행인 양우정이 구속되면서 신문 발행이 중단되었다. 김성곤이 1954년 3월 판권을 인수하여 신문을 다시 발행하다가 1962년 1월 1일 무터 제호를 〈서울일일신문〉으로 바꿔 발행하다가 1962년 1월 1일 자진 폐간하게 된다.

영남일보(嶺南日報)

1945년 10월 11일 10여 명의 동인이 주도하여 창간한 신문으로 해방 직후 혼란 속에서 불편부당한 정론을 펴고자노력하며 지방지 최초로 민족지를 표방한 신문이다. 각종 단체들의 성명서, 알림 등의 광고가 많이 실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의 해방 직후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우리신문

우리신문은 좌익이 미소공동위원회 2차 대회를 앞두고 발간한 신문이다. 노유환이 1947년 2월 10일 편집발행 겸 인쇄인 으로 청간한 좌익계열 일간지로서 국한문을 섞어서 보도했다.

예술통신(藝術通信) 문화일보(文化日報)

프린트 판형으로 창간된 '예술통신'은 해방공간 영화와 예술계 소식만을 언론사에 제공해 온 매체이며 후에 문화일보로 제호변경하였다. 좌익의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뉴스는 별로 없었고, 예술과 관련된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민보(自由民報)

자유민보는 좌익계 신문에 대항하여 1946년 2월 26일 창간한 부산지역의 우익 계열 신문이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경남 지부 회관에서 대한독립촉성회의 기관지로 출범하였으며 부산 지역의 당시 정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자유신문(自由新聞) 자유신보(自由新報)

1945년 10월 5일 창간한 동인지로 창간의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민족 내부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소양의 증대다. 1952년 5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허가 취소된 이후 1953년 9월 자유신보(自由新報)로 이름을 바꾸어 속간 했지만 1961년 3월 다시 허가가 취소된 이후 재기하지 못한다.





전국노동자신문(全國勞動者新聞)

1945년 11월 1일 창간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기관지로서, 일반 신문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사항 등을 담은 내용을 주로 담았다. 한글로만 작성 되었는데 한자는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표기했다. 반월간 신문이었지만 주마다 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국신문(帝國新聞)

원명은 〈미국신문〉이었으나, 1903년 7월 7일 〈제국신문〉으로 제호를 바꿨다. 과감한 논조로 무능한 정부와 관리의 부패 및 일본세력의 국권침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며 순한글로 발행되어 접근하기 쉬워 민중을 계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삼특보(第三特報) 신민일보(新民日報)

제삼특보는 1946년 10월 28일 창간된 신문으로 어느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익의 기사를 두루 다룰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북 모두를 포함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민생고 해결, 친일 청산 등의 문제에 집중해 기사를 작성하고 논평하였다. 신민일보는 1946년 10월 28일 창간된 제삼특보를 개제하여 발행된 신문이다.

제일신문(第一新聞)

1947년 11월 4일에 광명일보의 제호를 개제하고 지령을 계승하여 창간되었다.

광명일보는 좌익계열 단체의 활동상을 많이 보도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좌익계열 신문에 대한 탄압이 다각도로 진행 되면서 제일신문으로 속간한 이후는 논조가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열악한 사회경제상황에 대해 전반적 으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주신보(濟州新報)

1946년 1월 26일 창간한 격일제 제주신문이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신문은 20여일간 휴간하였고, 1948년 10월에 제주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4.3사건 진압 명분으로 파견된 서북청년단이이 신문을 인수하여 10개월 간 발행하기도 했다. 창간 무렵 지역적인고립과 인쇄시설 미비와 함께 한국전쟁과 4.19 의거를 겪으면서도 제주도 유일의 지방일간지로 성장했다. 1947년 1월 1일부터 1948년 4월까지 3.1 발포사건을 시발로 1948년 4.3봉기로 이어지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담고 있는 신문이다.

조선경제신보(朝鮮經濟新報)

매주 토요일 발행하는 주간지로 1945년 9월 29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주로 경제 정책의 발표를 비롯한 경제 기사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사설을 통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많고 당시의 물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수산시보(朝鮮水産時報) 수산경제신문(水産經濟新聞)

수산경제신문은 1946년 6월 10일부터 일간으로 발행된 경제지로서 해방 후 조선수산시보의 제호를 변경하였다. 조선수산시보가 말 그대로 수산지였던 것에 비해 수산경제 신문은 수산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정치, 사회, 문화, 해외 관련 보도 등도 망라하는 경제종합지임을 표방했다.

조선시보(朝鮮時報)

조선시보는 1892년 12월 5일 창간된 부산상황을 1894년 11월 21일에 재창간한 일간지이다. 경제 정보 전문지로서 조선 최대의 미곡항이자 문화의 거점인 식민 근대 도시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문이었다.





조선신문(朝鮮新聞)

한국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일본어 일간 신문으로 〈경성일보 (京城日報)〉、〈부산일보(釜山日報)〉와 함께 당시 한국 내 발행 일본어 3대 신문의 하나로 꼽힌다.

인천에서 발행되던 〈조선시보(朝鮮新報)〉와 조선타임즈가합병되어, 창간된 신문으로 한국 거주 일본인의 '민간지'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와 대비되는 민간지를 자처하였다. 1942년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 정책에 따라 경성일보에 흡수되면서 1942년 2월 폐간되는데, 조선신문은 일제 시기재한 일본인 사회와 일제의 침략, 통치 정책 등 연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여운형]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더불어 당시 한국어 3대 민간신문의 하나인 중외일보가 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꾼 이후 여운형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꾸었다. 손기정 선수의 시상대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정간하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복간되지 못하였으며 1937년 발행 허가 마저 상실되며 폐간되었다.





중앙신문(中央新聞)

1945년 11월 1일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국민신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려다가 경영진과 직원사이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해방후 〈조선인민보〉, 〈자유신문〉과 함께 언론계를 이끌던 신문 가운데 하나였다. 좌.우익의 양측을 같은 비중으로 다룬 중도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좌익지와 더불어 신탁통치안의 찬성에 앞장서며 우익청년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는 등 미군정의 강력한 언론 단속으로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이후 1947년 4월 19일 간행이 재개되면서 좌익계 기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으나 '남북연석회의', '5.10선거' 등에 소극적 지지표명으로 1948년 7월 종간하게 된다.

중앙일보(中央日報)

중앙일보는 1931년 11월 27일부터 1933년 3월 6일까지 발행된 일일신문으로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이은 3번째 민간의 일간신문이었다. 1932년부터 기존 석간 4면 체제에 일요일 6면 체제로 변화했다. 늘어난 일요일 두 면에 중앙일보만의 특색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여성·아동문학학예문단·평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기사와 기고, 투고를 여기에 실었다.





중외경제신보(中外經濟新報)

1946년 5월 24일 경제종합신문으로 창간된 일간지이다. 경제전문지로서 정치소식은 단신화하고 경제관련 기사 및 경제 현상 해설을 중심으로 다뤘다. 해방 이후 우리 경제 동향 및 각종 정책과 수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외신보(中外新報)

편집 겸 발행인인 강진희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1946년 4월 19일 창간한 좌익계 일간신문이다. 1946년 9월 26일부터 출판노조의 파업으로 휴간하였다가 이해 11월 29일자부터 여운형이 사장에 취임해 발행을 재개하였으나 여운형 저격사건 등으로 신문발행에 난관을 겪으며 1947년 8월 13일 이래 휴간에 들어갔다가 폐간되었다.





중외일보(中外日報)

시대일보의 발행 허가가 1926년 9월 소실되면서 새롭게 발행 허가를 얻어 창간된 신문이 중외일보이다. 중외일보는 시대일보의 발행권을 인수해 창간되었지만, 시대일보의 지령을 계승하지 않고 1926년 11월 15일 지령 제1호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충청매일(忠淸每日)

충청매일은 해방 이후 1946년 대전에서 발행된 충남일보가 1948년 11월 24일 재창간하여 발행된 신문으로 중앙의 정치 소식을 지역에 전파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 중심의 소식을 전하여 지방지로서 가치가 있다.





평화일보(平和日報)

평화일보는 공보부의 정식 허가를받아 1948년 2월 8일 창간된 신문이다. 이승만 정부의 탄생과 조각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있으며, 여순반란사건의 상세한 전황 등이 게재 되는 등 1948년 정부 출범과 좌우익 대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한성순보(漢城旬報)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평가된다. 1883년 10월 31일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 창간하여 발행하다가 이듬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 조선정부는 개화 개방이라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세계의 정세흐름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대적 신문인한성순보를 발행했다.





한성일보(漢城日報)

1946년 2월 26일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우익 일간지 가운데 하나였다.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휴간했다가 그해 9월 30일 속간했고, 1949년 2월 인쇄사정을 이유로 다시 휴간했다가 그해 9월 1일 속간하였다. 한국전쟁 전까지 보수적 논조로 일관했으며, 전쟁후 사장 안재흥이 납북 당하여 폐간당하게 된다.

한성주보(漢城周報)

한성주보는 갑신정변으로 인해 발행이 중단된 한성순보를 복간해 나온 신문이다. 국제정보를 입수하고 근대문물을 소개하는 한편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한성주보의 중요한 특징은 처음으로 광고가 실렸다는 점이다. 제4호(1886.2.22.)부터 광고를 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광고였다.





현대일보(現代日報)

1946년 3월 25일 창간된 대표적인 좌익계열의 일간신문으로, 1946년 9월 6일 미군정 비방혐의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무기정간 되기도 했는데, 이후 우익인 대한독립청년단의 서상천이 판권을 인수하여 1947년 1월 29일 166호로 속간했다. 간행주체가 우익으로 바뀐 뒤에 편집에 큰 차이는 없지만 기사의 등장인물이나 기고자가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면 교체되어 있었다.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협성회회보는 배재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가 1897년 12월 제29회 공개토론회에서 회보 발간을 결정하고 1898년 1월 주간지로 창간하였다. 정부 지원과 외국인의 감독과 정부 등의 지원 없이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처음 발간되는 신문으로 평가 받는다.





호남신문

1946년 11월 24일 전남신보를 호남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발행한 신문으로 우리나라 신문사상 처음으로 국한문혼용의 가로쓰기를 도입했다는 신문사적 의미가 있다.

호남신문의 해방 이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동향과 문화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황민일보(皇民日報)

황민일보는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경성일보사에서 1942년 6월 25일 창간한 일간 신문이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의 전시 체제가 막바지에 이른 1942년에 경성일보사에서 발행하였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일제의 전시 선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간행되었다.





황성신문(皇城新聞)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5일 창간한 일간신문으로, 국한문혼용으로 발행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 인물, 문화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일제에 합방될 때까지 수차례 정간을 겪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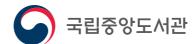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과거와 미래의 소통

발행일 2020. 7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www.nl.go.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